

부부의 성별 평등 인식과 행복의  
관계에서 가정생활 만족의  
상호매개효과 검증: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모형의  
적용

이성철, 김진욱  
서강대학교



## 부부의 성별 평등 인식과 행복의 관계에서 가정생활 만족의 상호매개효과 검증: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모형의 적용\*

이성철\*\*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김진옥\*\*\*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제분류**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정책, 가족정책

**주제어** 부부연구, 성별 평등 인식, 행복, 가정생활 만족,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모형

**요약문** 본 연구는 부부의 성별 평등 인식과 행복의 관계에서 가정생활 만족의 상호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어 부부를 분석 단위로 하여 각 변수의 행위자 효과와 상대자 효과를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extended to Mediation)을 적용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의 한국인의 행복조사 21년도 자료의 3,190명(1,595쌍 부부)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남편과 아내의 성별 평등 인식과 행복, 가정생활 만족의 관계에 있어 남편과 아내 모두 행위자 효과에서 성별 평등 인식이 가정생활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과 가정생활 만족이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상대자 효과에 있어 부부간 성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아내의 경우 성별 평등 인식과 가정생활 만족 모두 남편의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던 것에 반해 남편의 경우 유의한 수준의 상대자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남편과 아내의 성별 평등 인식과 행복의 관계에 있어 남편과 아내 모두 가정생활 만족의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상대자 효과에 있어서 아내의 성별 평등 인식은 남편의 행복에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주었지만, 남편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대자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공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A2A03083567).

\*\* 주저자

\*\*\* 교신저자

## I. 서론

행복은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논의되는 주제이다. 오늘날 행복이란 단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가장 널리 활용되는 개념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삶의 유형이나 문화를 통틀어 일컫는 개념으로 복지·행복·안녕을 뜻하는 ‘웰빙(well-being)’과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만족감, 안정감, 행복감 등의 주관적 평가의식을 규정하는 복합적인 요인을 뜻하는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다(고영복, 2000: 62). 삶의 질 개선을 통한 국민의 행복보장은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헌법 제 10조를 통해 행복추구권을 헌법 상의 권리로 규정하고 국가의 핵심 의무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은 행복한 나라일까? 동아시아 국가가 서구 선진국에 비하여 문화적으로 행복도가 낮는데(김윤태, 2010),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높은 경제수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행복도가 낮은 나라이다. 국가의 행복 및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UNSDSN)의 ‘세계행복보고서(WHR)’, OECD의 ‘더 나은 삶의 지수(BLI)’, 유엔개발계획(UNDP) ‘인간개발지수(HDI)’ 등이 있는데, 객관적 지표인 인간개발지수(HDI) 상으로는 상위권이지만<sup>1)</sup> 주관적 지표만 다루는 세계행복보고서(WHR)에서는 세계 146개국 중 59위, OECD 38개국 중에선 36위였다.<sup>2)</sup>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모두 고려하는 더 나은 삶의 지수(BLI)에서도 OECD국가 41개국 가운데 32위로 중하위권이였다. 통계청의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2021년 6.3점, 2019~2021년 3년간은 평균 5.9점으로 보고되었는데, OECD 국가 평균(6.7점)보다 0.8점 낮은 것이다. OECD 회원국 38개국 중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콜롬비아와 튀르키예 2개국 뿐이었다. 즉, 한국인들이 느끼는 행복의 수준은 여전히 소득 등 객관적 지표의 수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며, 정부는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문진영, 2012).

한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성불평등지수(GII: Gender Inequality Index)<sup>3)</sup>는 0.067로 191개 대상 국가 중 15위로 서구 선진국 수준의 성평등을 이룬 것

1) 기대수명, 기대교육년수, 평균교육년수, 1인당 국민총소득만을 고려하는 HDI에선 188개국 가운데 19위에 올랐다.

2) 건강기대수명(3위), 1인당 국내총생산(GDP)(26위)은 상위권이었지만 부패(44위), 관용(54위), 사회적 지원(85위), 자율성(112위) 등이 중하위권인 때문이다.

3) 성불평등지수(GII: Gender Inequality Index)는 UNDP가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를 통해 2010년부터 발표하는 지수로, ① 생식 건강, ② 여성 권한, ③ 노동참여 영역에서 불평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인간개발의 손실을 측정하고 있으며, 기존 여성관련 지수로 발표하던 ‘여성권한척도(GEM)’와 ‘남녀평등지수(GDI)’를 대체한 지수. 성불평등지수는 점수가 0이면 완전 평등(no inequality), 1이면 완전 불평등한 상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함.

으로 나타났으나, 2022년 성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sup>4)</sup>는 0.689로 146개 대상 국가 중 99위로 97위 카메룬, 98위 캄보디아 보다 성별 격차가 큰 ‘양성 평등 후진국’ 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방식의 차이에 기인했다고 하지만 성별 평등과 관련 이러한 이중적인 양상은 국내의 성평등 수준에서도 나타나는데, 2021년 기준 분야별 성별(Gender) 평등 수준에서 보건분야는 96.7점, 교육 및 직업훈련분야는 94.5점으로 높았지만,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만족도 등으로 구성된 가족분야는 65.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여성가족부, 2021). 이렇듯 한국은 성별 평등에 있어서 이중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이중적인 양상의 원인으로 경제는 발전하였지만, 남성 우월주의와 같은 전통적 가치관이 많은 부분에서 유지되면서 문화지체(cultural lag)현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문화적 갈등이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다(김윤태, 2010).

한국은 그동안 가부장제 및 남성 부양자 모델이 강하게 유지되어 왔다.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가 확대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성별 평등과 관련하여 인식의 차원과 행위의 차원의 불일치, 즉 ‘진술과 실제’에서 불일치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불일치는 가족 단위에서부터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사회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박종서, 2013). 성별 평등 관련 진술과 실제의 불일치가 출산율의 감소와도 연관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에 따르면 공적 영역(경제활동 및 사회참여)에서 양성평등 수준이 개선되면서, 가족생활과 같은 사적 영역의 양성평등 수준과 격차가 발생하고, 공사영역의 양성평등 수준의 격차가 큰 사회일수록 저출산 경향이 관찰된다는 것이다(McDonald, 2000).

출산율의 저하와 반등을 일관된 논리로 설명하였고, 최근 들어 그 설득력이 점차 더 커지고 있는(McDonald, 2000; 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 김영미, 2016) ‘성별(젠더) 평등’ 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sping-Andersen과 Billari의 ‘다중균형모델’은 출산율에 관한 성별 평등 관점의 대표적인 연구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여성 혁명’(female revolution)의 진전에 따라 출산율의 역동이 관찰되며, 성평등주의 이행의 초기에는 출산율이 하락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평등이 확산되면 출산율이 반등하여, U자형 혹은 V자형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 모델을 바탕으로 OECD 16개국의 1980년부터 2017년까지의 시계열자료를 결합하여 산점도분석과 10년 단위의 시기별 결합시계열회귀분석을 한 연구(류아현·김교성, 2022)에서 대체로 성별 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의 반등이 뚜렷한 반면, 성별 평등 수준이 낮은 국가의 경우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양성 불평등에 따른 가족 갈등과 그로 인한 개인의 불행 및 사회문제를 방지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성별 평등에 대한 연구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앞에서 제기한 출산율과 같은 문제들은 향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문제이다.

4) 성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는 2006년부터 세계경제포럼(WEF : World Economic Forum)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표로 경제, 정치, 교육, 건강에 대한 성 격차를 통해 성 평등 정도를 파악하는 지수. 점수가 1이면 완전 평등(no inequality), 0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함.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변화를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문제해결이 시급해지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 간 성별 형평성 연구, 기업 내 성차 연구 등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통계청은 2008년부터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기반으로 일·가정양립지표를 공시하였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09년 한국형 성평등 지수를 개발하는 등 정부기관 또한 국민의 성별 평등 인식을 확대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김효진 외, 2020).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조사와 더불어 실증적 연구와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가족체계 내 부부를 대상으로 성별 평등 인식이 남편과 아내의 어떠한 메커니즘에 기반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기존의 행복 연구들이 개인을 대상으로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면, 최근 젠더갈등 문제로 우리 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성별 평등 인식을 중심으로 행복과 가정생활 만족에 대해 탐색하고 그 영향관계를 행위자(Actor) 효과와 상대자(Partner) 효과로 구분하여 남편과 아내 간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성별 평등과 관련한 새로운 관점을 바탕으로 실증연구를 통해 성별 평등과 관련하여 치우치지 않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목적을 부부(남편과 아내)의 성별 평등 인식과 행복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가정생활 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검증과정에서 기존의 남편과 아내를 각각 구분하여 개인을 연구단위로 하는 선행연구와 달리 부부(커플)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요 변수들의 행위자(Actor) 효과와 상대자(Partner) 효과 및 상호매개효과를 고려하여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부부의 성별 평등 인식은 행복에 영향을 주는가?’, ‘성별 평등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가정생활 만족의 상호매개효과가 있을까?’ 라는 연구 질문을 설정 후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 II. 선행연구

### 1. 부부의 행복

부부는 가족 형성을 시작하는 기초가 되는 체계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로서 부부를 바탕으로 가족관계가 확장된다는 점에서 가족체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가족체계이론에 따르면 부부는 두 개인의 독립적인 존재라기보다 부부체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인 존재이다(White et al., 2015). 가족체계이론의 기본 전제는 개인의 인지 및 정서적 반응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과 같은 중요한 대인관계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부부는 두 개인이 모여 만든 하나의 체계로 개인과는 다른 가족체계를 구성하며 이 체계 안에서 개인의 정서나 감정은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인 상대방과 영향을 주고받는다(임

정하 외, 2017). 또한 체계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체계의 환경에 영향을 주고, 체계의 환경은 다시 체계의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가족체계이론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피드백(feedback)이라고 한다(주수산나 외, 2015). 따라서 부부체계에 속한 개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 단위를 넘어 부부 수준에서 남편과 아내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는 접근법이 요구되며(Goodman and Shippy, 2002), 부부를 대상으로 개인의 행복이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부부라는 가족체계 안에서 개인의 행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부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로서, 자신의 행복은 상대방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NHE(New Home Economics)를 통해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타주의 등 가족을 경제학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G. Becker, 1981; 1991)에서도 개인의 행복(효용)을 증대하는 전략 과정에서 이타성을 기반으로 한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관계가 언급되었는데, 부부의 행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개인의 행복과 관련된 인식과 행위의 측면이 개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행복에 관해 부부를 대상으로 수행된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부부를 하나의 체계로 보고 통합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부부(커플)단위의 차이가 아닌 성별에 따른 개인 단위의 차이를 주로 살펴보고 있다(임정하 외, 2017).

부부와 같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의 맥락을 고려한 선행연구(김시연·서영석, 2010; 설경옥 외, 2016; 주수산나 외 2015)에 따르면 개인의 행복감에는 자신의 특성이나 행동뿐 아니라 배우자의 특성이나 행동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이 이성과 감정을 구분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의 행복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편과 아내 모두 인지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자신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의도적 활동을 자주 수행할수록, 삶의 만족도에 대한 행위자 효과와 상대방 효과가 모두 나타났다(주수산나 외, 2015). 또한 부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일-가정 균형(양립), 회복탄력성 등이 있는데, 일-가족 균형이 웰빙(well-being)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고(Lyness and Kropf, 2005),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의 경우 일-가정 균형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으며(송혜림, 2015), 남편의 행복 수준 증진을 위해 일-가정양립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도 있다(김경미·계선자, 2018). 최근 행복 연구의 주요 변인으로 주목받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나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개인의 심리적 자원(김주환, 2011)인 회복탄력성도 부부 행복에 있어 주요한 변인으로 평가받고 있다(하쾌남·장민자, 2017).

## 2. 성별에 대한 평등 인식과 행복, 가정생활 만족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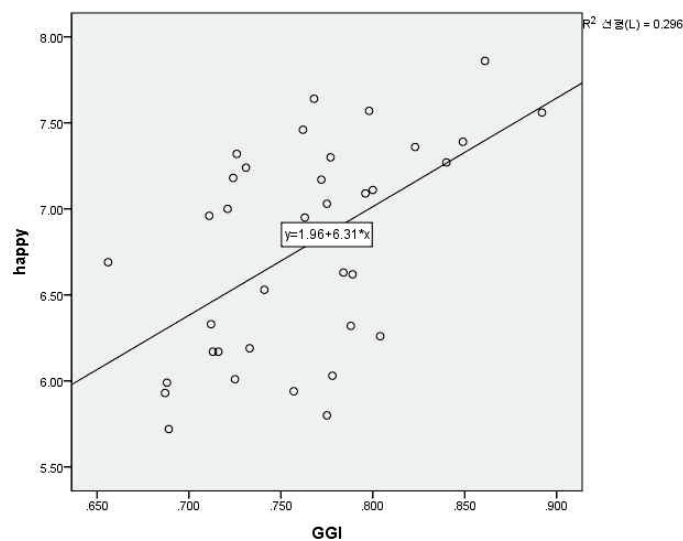
성별에 대한 평등의 정의(definition)는 그 자체로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각 사회에서 제각기 형성되는 성별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인지하고 해소하고자 하는지, 또한 각 사회의



젠더질서에 따라 성별에 대한 평등의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이다(신경아, 2016). 성별 평등은 다양한 차원과 많은 층위를 가진 복잡한 개념이며, 위계화된 성역할, 성별 지위 등을 포함한 불평등한 성차별 구조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이재경·김경희, 2012)

성별에 대한 평등은 국가 수준의 비교연구에서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되기도 하는데, 유엔(UN) 산하 자문 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에서는 세계행복보고서<sup>5)</sup>를 통해 국가별 행복지수를 보고하는데 행복지수가 1위인 핀란드를 비롯해 덴마크, 아일랜드, 스위스 등의 행복 상위 국가의 ‘성평등’ 수준 또한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2022년도 성격차지수(GGI)는 156개국 중 99위로 매우 낮다. 경제수준에 따라 순위가 어느 정도 높아지도록 설계된 유엔개발계획(UNDP)의 성불평등지수(GII)와는 달리, 실제적 결과를 토대로 성별 격차(불평등 수준)를 측정하는 이 지수는 한 나라의 경제수준이 높아도 성별 격차가 심하면 낮게 나타난다. 결국 성격차지수(GGI)가 낮다는 것은 선진국일지라도 성별에 있어 사회적으로 평등한 국가는 아니며, 이것은 또한 행복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OECD 36개국의 2022년도 행복지수와 성격차지수(GGI)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그림 1> 2022년 OECD국가 행복지수와 성격차지수의 관계\*



\*연구자가 2023년도 UN 행복보고서 및 국가성평등보고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OECD가맹국 36개 국가의 행복지수와 성격차지수(GGI)를 분석한 결과임.

행복과 관련된 실증연구 결과에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부부간 평등 및 자율성을 더 중시하

5) 해당 보고서에는 국가 행복지수와 연관이 있는 지표인 GDP, 기대수명, 사회적 지지, 선택의 자유, 이량, 부정부패 등을 함께 산출함.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평등을 남녀가 평등한 주체적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을 때, 가족 내에서 부부는 상대방의 존재와 인식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한 상호 주관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남녀 각자가 책임을 의식하고 자신들의 결정을 판단할 수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특히 현실적으로 불평등한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성별 평등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다(박민자, 2006). 최근에 성별, 세대별 비교를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도 평등 인식에 있어서 Z세대 남성은 취업기회의 평등과 성별 평등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M세대의 행복은 우리 사회의 성별 평등 수준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M세대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성별 평등이 행복에 보다 강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민보경 · 박민진, 2023).

가정생활 만족도는 요인으로 연구된 역사가 길지 않고 각 연구마다 척도와 대상이 상이하여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구성원에 대한 만족의 정도로 정의하기도 하고(Schumm et al., 1986),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정의하기도 한다. (Zabriskie and Ward, 2013). 최근 국내연구에서는 가정생활 만족을 가정생활의 전반적인 영역과 가족구성원 간 관계의 주관적인 만족감의 정도로 사용하고 있다(김효진 외,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가족생활의 만족과 구성원 간 관계의 만족 정도를 가정생활 만족으로 파악하고 활용하였다.

가족의 불안정성이 심화된 사회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가족 내에서의 안정성을 더 많이 갈구하며 가족생활에서의 만족도를 중시한다(나성은, 2014). 또한 성평등 인식을 바탕으로 성역할 인식이 유연할수록 가정생활 만족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도 다수 있는데, 맞벌이를 하는 아내의 경우 유연한 성역할 인식을 가질수록 직장내 가정 내의 갈등요인을 낮게 인식하며, 이는 가정 및 결혼생활 만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하였고(김주현 · 문영주, 2010). 남편의 경우에도 성평등 인식이 높고, 성역할 인식이 유연할수록 결혼 및 가정생활 만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 남편이 고착화된 성역할 인식을 가지는 경우 아내가 더 많은 가사 및 육아노동 부담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아내와의 갈등으로 인해 가정생활 만족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이정은 · 이윤형, 2012). 이 밖에 김지현 외(2005)의 연구, 김태현과 박주희(2005)의 연구에서도 부부가 유연한 성역할을 가질수록 결혼 및 가정생활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 인식은 남녀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가치관이기 때문에 가정생활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성평등 인식보다는 가사노동분담, 육아시간과 같은 수행 변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및 변수

본 연구는 국회미래연구원이 한국인의 행복 수준과 평등 및 불평등에 대한 인식, 가족 구성

원 간의 만족감 등을 조사하고, 다양한 사회 현상을 예측하며 국민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발굴하고자 2020년 예비조사 이후 2021년 이후 매년 수행하는 ‘한국인의 행복 조사’의 2021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국인의 행복조사는 만 15세 이상의 국민, 전국의 8,000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대표본 조사이며 지역배분 및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고려하여 다단계 층화집락추출법을 활용하여 표본을 수집하는 조사이다(국회미래연구원, 2022). 가중치를 부여하고 조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서 연구의 일반화에 유용하며, 가구원의 응답을 모두 수집하는 조사로서 동일문항에 대한 부부의 응답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행위자·상대자 모형분석에 적합한 자료라고 판단하였다. 유효표본 가구원 총 17,357명(8,162가구) 중 가구코드를 기준으로 ‘가구주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에서 ‘가구주(응답코드 1)’, ‘가구주의 배우자(응답코드 2)’를 추출하여 부부 중 한 명의 응답이 없어도 결측으로 처리하는 등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거쳐 총 3,190명(부부 1,595쌍)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의 전체 평균 연령은 58.10세(SD=11.989)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편의 평균 연령은 59.23세(SD=12.283)이었고, 아내의 평균 연령은 56.97세(SD=11.580)이었다. 연령대는 30대가 202명(6.3%), 40대가 608명(19.1%), 50대가 910명(28.5%), 60대 이상이 1,470명(46.1%)이었다. 남편의 교육수준은 고졸이하 918명(57.6%), (전문)대학교 졸업 656명(41.1%), 대학원 이상 21명(1.3%)순으로 나타났고, 아내의 교육수준은 고졸이하 1,042명(65.3%), (전문)대학교 졸업 545명(34.2%), 대학원 이상 8명(0.5%)순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종사상 지위는 (계약직 포함)임금근로자 706명(44.3%), 자영업자 534명(33.4%), 무직 및 무급가족종사자 등 기타 355명(22.3%)였고 아내의 종사상 지위는 (계약직 포함)임금근로자 400명(25.1%), 자영업자 216명(13.5%), 무직 및 무급가족종사자 등 기타 979명(61.4%)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지난 1년간 월평균 개인소득(세전 기준)의 경우 100만원 미만(무소득 포함) 220명(13.8%), 100~300만원 미만 568명(25.6%), 300~500만원 미만 648명(40.6%), 500만원 이상이 159명(10.0%), 아내의 지난 1년간 월평균 개인소득(세전 기준)의 경우 100만원 미만(무소득 포함) 907명(56.9%), 100~300만원 미만 540명(33.8%), 300~500만원 미만 121명(7.6%), 500만원 이상이 27명(1.7%)이었고, 남편의 경우 종교가 있는 사람이 474명(29.7%)이 종교가 없는 사람이 1,121명(70.3%), 아내의 경우 종교가 있는 사람이 649명(40.7%)이 종교가 없는 사람은 946명(59.3%)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분석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남편	아내	변수		남편	아내
교육 수준	고졸이하	918(57.6)	1,042(65.3)	1년간 월 평균 개인 소득 (세전)	100만 미만	220(13.8)	907(56.9)
	(전문)대졸	656(41.1)	545(34.2)		100~300만 미만	568(25.6)	540(33.8)
	대학원이상	21(1.3)	8(0.5)		300~500만 미만	648(40.6)	121(7.6)
종사 상	임금근로자	706(44.3)	400(25.1)		500만 이상	159(10.0)	27(1.7)

지위	자영업자	534(33.4)	216(13.5)	종교	있음	474(29.7)	649(40.7)
	무직, 기타	355(22.3)	979(61.4)		없음	1,121(70.3)	946(59.3)

본 연구에서 사용한 행복은 ‘전반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1문항)과 삶의 의미(유데모니아 차원의 행복: 삶의 의미, 성취감, 인생 결정 자유)을 묻는 질문(3문항)의 응답(1~10점)을 사용하였다. 성별 평등 인식은 개인 및 사회에 대한 인식 항목 중 ‘우리 사회에서 다음의 각 항목이 얼마나 평등하다고 혹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 중 성(性)별 항목에 대한 응답(1:매우 불평등~5:매우 평등)을 사용하였고, 가정생활 만족은 ‘자신의 가족생활/배우자와의 관계/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질문(3문항)의 응답(1~7점)을 사용하였고 자세한 구성은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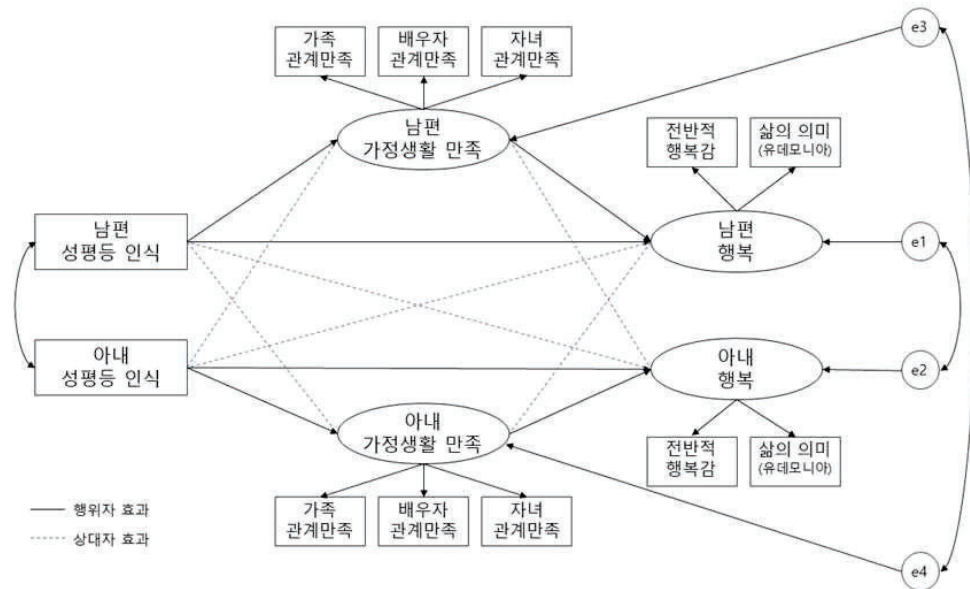
<표 2> 변수 구성

구분	잠재변수	측정변수 문항
종속 변수	행복	전반적으로 귀하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평소 내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삶에서 의미 있다고 느낀다.
		나는 대체로 내가 하는 일로부터 성취감을 느낀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있어 자유롭다.
독립 변수	성별 평등 인식	우리 사회에서 다음의 성(性)별이 얼마나 평등하다고, 혹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개 변수	가정생활 만족	귀하는 자신의 가족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자신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2. 연구 모형 및 연구 가설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그림 2>와 같으며, 매개분석의 일종인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모형(APIMeM: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extended to Mediation)(Ledermann et al., 2011)을 분석모형으로 하였다.

〈그림 2〉 연구모형



해당 모형은 분석 자료와 변수가 모두 쌍으로 구성되어 종속변수, 독립변수, 매개변수 각 2개씩 존재한다. 종속변수로는 남편과 아내의 행복, 독립변수로는 남편과 아내의 성평등 인식, 그리고 매개변수로는 남편과 아내의 가족생활 만족이 설정되었다. 같은 주체의 변수들끼리 주고받는 영향은 행위자 효과로 정의되고, 상대방의 변수에서 기인하는 영향은 상대자 효과로 정의된다(김효진 외, 2020).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가설 1. 부부의 성별에 대한 평등 인식은 가족생활 만족을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줄 것이다.

연구가설 2. 행위자 효과와 상대자 효과는 각 경로에서 유의할 것이다.

### 3. 분석 방법

연구 모형에 따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3 및 AMOS 23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조 방정식모형(SEM)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개개인이 아닌 부부 등 쌍(커플)을 분석단위로 하는 커플자료 분석(Dyadic data analysis)에 대한 요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중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은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 대한 상호의존성을 가정하고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모형으로써, 쌍방의 영향력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고 해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김효

진 외, 2020: 471).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모형(APIMeM)은 두 개의 독립변수  $X1$ ,  $X2$ , 두 개의 매개변수  $M1$ ,  $M2$ , 두 개의 종속변수  $Y1$ ,  $Y2$ 가 존재하며, 행위자의 매개변수와 상대자의 매개변수를 통해 동시에 작용하는 관계를 나타내며 관계 수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M1 &= a_{M1} + a_1X1 + a_2X2 + e_{M1} \\ M2 &= a_{M2} + a_3X1 + a_4X2 + e_{M2} \\ Y1 &= a_{Y1} + c'_1X1 + c'_2X2 + b_1M1 + b_2M2 + e_{Y1} \\ Y2 &= a_{Y2} + c'_3X1 + c'_4X2 + b_3M1 + b_4M2 + e_{Y2} \end{aligned}$$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를 통해 증분적합도를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통해 절대적합도를 확인하였고,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Bootstrap) 기법을 적용하여 신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고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기술통계 및 평균차이 분석, 상관행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과 변수 간 평균차이 분석 결과는 <표 3>, 상관행렬은 <표 4>와 같다. 먼저, 각 변수의 평균을 통해 아내의 성별 평등 인식이 남편의 성별 평등에 비해 조금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였다. 행복의 경우 전체 평균과 일에 대한 성취감과 삶에 대한 자유로운 자기결정은 남편이 아내보다 높게, 삶의 의미는 같게 나타났다. 가정생활 만족의 경우 전체 평균과 가족생활 만족 및 자녀관계 만족은 아내가 남편보다 높게 조사되었으나 배우자와의 관계는 남편이 아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도 및 첨도의 최대 절댓값은 확인 결과 정규성 가정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Kline, 2015) 모든 변수에 대한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변숭통계 및 평균차이 분석 결과(N=1,595)

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t-value (p)
1)남편	전반적 행복	6.55	1.395	-.680	.987	-1.006 (.314)
1)아내		6.59	1.350	-.549	.660	
2)남편	삶의 의미	6.41	1.509	-.743	.847	.000 (1.000)
2)아내		6.41	1.481	-.606	.674	
3)남편	일에 대한 성취감	6.26	1.605	-.534	.249	1.360 (.174)
3)아내		6.18	1.597	-.435	.323	
4)남편	삶에 대한 자유로운 자기결정	6.33	1.598	-.618	.537	1.679 (.093)
4)아내		6.23	1.608	-.496	.206	
5)남편	유데모니아 행복 (2+3+4)	19.00	4.233	-.727	.784	1.155 (.248)
5)아내		18.83	4.197	-.536	.561	
6)남편	행복 (1+5)	6.37	1.343	-.721	.819	.655 (.512)
6)아내		6.36	1.317	-.493	.420	
7)남편	성별 평등 인식	2.99	.845	-.096	.007	3.677 (.000)
7)아내		2.88	.850	.002	-.088	
8)남편	가족생활 만족	5.44	.982	-.429	.524	-.295 (.768)
8)아내		5.45	.936	-.370	.344	
9)남편	배우자관계 만족	5.46	.983	-.456	.777	1.904 (.057)
9)아내		5.39	1.007	-.456	.686	
10)남편	자녀관계 만족	5.60	1.021	-.592	.880	-3.186 (.001)
10)아내		5.71	.968	-.494	.436	
11)남편	가정생활 만족 (8+9+10)	16.50	2.707	-.561	.956	-.591 (.555)
11)아내		16.56	2.563	-.521	.778	

〈표 4〉 상관행렬

구분	변수명	1)	2)	3)	4)	5)	6)
1)남편	성평등 인식	1					
2)남편	행복	.158**	1				
3)남편	가정생활 만족도	.167**	.664**	1			
4)아내	성평등 인식	.531**	.173**	.146**	1		
5)아내	행복	.125**	.678**	.551**	.140**	1	
6)아내	가정생활 만족도	.154**	.575**	.738**	.143**	.650**	1

\* p&lt;.05, \*\*p&lt;.01

## 2. 행위자 효과 및 상대자 효과 검증

먼저 모형을 검증한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TLI=0.946$ ,  $CFI=0.966$ ,  $RMSEA=0.080$ (신뢰구간  $=.073\sim.086$ )으로 나타나 모형이 자료의 구조와 변수 간 관계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6)</sup>

성별에 대한 사회적 평등 인식이 가정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남편의 성별에 대한 평등 인식이 자신 및 아내의 가정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135(p<.000)$ ,  $.096(p<.000)$ 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기 때문에 행위자 및 상대자 효과가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의 성별에 대한 인식이 평등할수록 본인과 아내의 가정생활 만족을 높인다는 것을 나타낸다. 아내의 경우에도 자신 및 남편의 가정생활 만족에  $.083(p=.002)$ ,  $.086(p=.006)$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행위자 및 상대자 효과가 나타났다.

부부의 성별에 대한 평등 인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남편의 성별에 대한 평등 인식이 자신 및 아내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002(p=.964)$ ,  $-.032(p=.326)$ 으로 행위자 및 상대자 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내의 경우 성별에 대한 평등 인식이 자신의 행복에는  $.043(p=.002)$ ,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남편의 행복에는  $.086(p=.009)$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대자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아내의 성별에 대한 평등 인식이 평등할수록 남편과 더불어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 남편이 느끼는 가계경제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부의 가정생활 만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910(p<.000)$ ,  $1.289(p<.000)$ 로 남편과 아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인 행위자 효과가 나타났으나, 상대자 효과에 있어  $.219(p=.002)$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난 아내와는 다르게 남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각 경로에 대한 직접효과는 <표 5>에, 분석결과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표 5〉 직접경로에 대한 행위자 및 상대자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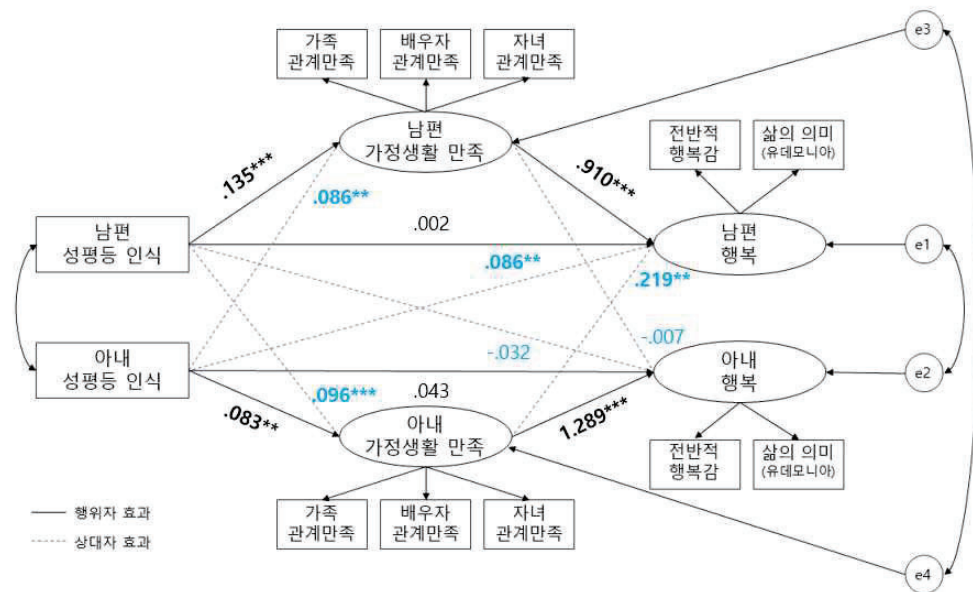
경로	계수	S.E	t	p
남편 성별에 대한 사회적 평등 인식→남편 가정생활 만족	.135	.031	4.304	<.000
아내 성별에 대한 사회적 평등 인식→남편 가정생활 만족	.086	.031	2.742	.006
남편 성별에 대한 사회적 평등 인식→아내 가정생활 만족	.096	.027	3.547	<.000
아내 성별에 대한 사회적 평등 인식→아내 가정생활 만족	.083	.027	3.108	.002
남편 성별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 인식→남편 행복	.002	.033	.046	.964
아내 성별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 인식→남편 행복	.086	.033	2.617	.009
남편 성별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 인식→아내 행복	-.032	.033	-.981	.326
아내 성별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 인식→아내 행복	.043	.033	1.318	.187

6) 일반적으로 TLI, CFI는 0.9이상을 기준으로 1에 가까울수록 좋은 적합도이며,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로 평가한다(허준, 2014).



남편 가정생활 만족→남편 행복	.910	.066	13.838	<.000
아내 가정생활 만족→남편 행복	.219	.076	2.873	.004
남편 가정생활 만족→아내 행복	-.007	.065	-.108	.914
아내 가정생활 만족→아내 행복	1.289	.084	15.278	<.000

〈그림 3〉 연구모형 분석결과



### 3. 상호매개효과 검증

부부의 성별에 대한 사회적 평등 인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가정생활 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의 Bootstrapping 검정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95% Bootstrap 신뢰구간은 <표 6>과 같다. 먼저 남편의 성별에 대한 사회적 평등 인식이 자신의 가정생활 만족을 매개로 자신 및 아내의 행복에 미치는 행위자 효과와 상대자 효과는 각각 .174, .142로 추정되었고 95% Bootstrap 신뢰구간에 모두 0이 포함되지 않아 유의도 5% 수준에서 검증결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의 성별에 대한 사회적 평등 인식은 남편의 가정생활 만족을 매개로 하여 자신과 아내 모두의 행복을 높이는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내의 성별에 대한 사회적 평등 인식도 가정생활 만족을 매개로 하여 자신과 남편 모두의 행복을 높이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직접경로에 대한 행위자 및 상대자 효과

경로	간접 효과	Boot SE	Boot LLCI	Boot ULCI
남편 성평등 인식->남편 가정생활 만족->남편 행복	.1736	.0288	.1170	.2291
남편 성평등 인식->아내 가정생활 만족->남편 행복	.1381	.0239	.0915	.1851
남편 성평등 인식->남편 가정생활 만족->아내 행복	.1415	.0241	.0950	.1890
남편 성평등 인식->아내 가정생활 만족->아내 행복	.1549	.0265	.1032	.2077
아내 성평등 인식->아내 가정생활 만족->아내 행복	.1422	.0269	.0901	.1969
아내 성평등 인식->남편 가정생활 만족->아내 행복	.1225	.0217	.0805	.1653
아내 성평등 인식->아내 가정생활 만족->남편 행복	.1267	.0240	.0804	.1755
아내 성평등 인식->남편 가정생활 만족->남편 행복	.1503	.0256	.0999	.2003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편과 아내의 성별에 대한 평등 인식과 행복의 관계에 있어 가정생활 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각 변수의 행위자 효과와 상대자 효과를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APIMeM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과 아내의 성별에 대한 평등 인식과 행복, 가정생활 만족의 관계에 있어 남편과 아내 모두 행위자 효과의 측면에서 성별에 대한 평등 인식이 가정생활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과 가정생활 만족이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상대자 효과에 있어 부부간 성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아내의 경우 성별에 대한 평등 인식과 가정생활 만족 모두 남편의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던 것에 반해 남편의 경우 유의한 수준의 상대자 효과는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아내의 경우 자신의 행복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정서를 잘 드러내고 이러한 표현이 상대자인 남편의 삶의 만족과 행복감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주수산나 외, 2015)는 선행연구의 해석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남편과 아내의 성별에 대한 평등 인식과 행복의 관계에 있어 남편과 아내 모두 가정생활 만족의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연구가설 1). 즉 부부의 성별에 대한 평등 인식이 남편과 아내의 행복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변수는 아니지만, 가정생활 만족을 매개하여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대자 효과에 있어서 아내의 성별에 대한 평등 인식은 남편의 행복에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주었지만, 남편의 경우 아내와는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대자 효과 측면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남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아내의 효과만이 의미있게 나타난 선행 연구(Givertz et al., 2016)와 유사한데, 본 연구와 선행연구 모두 부부체계 내에서 아내의 상대자 효과, 즉 아내가 남편의 행복 및 가정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만 나타난 것인데 본 연구 결과는 부부관계 안에서 상호 영

향을 주고받는 방식이 항상 대칭적인 것만은 아니며, 성별에 따라 부부관계 내에서도 영향력이 비대칭적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Hagedoorn et al., 2001)의 보고와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이는 부부체계에도 내재된 젠더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에 대한 평등 인식과 가정생활 만족의 관계는 성평등 인식 및 성역할 인식과 가정생활 만족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족 내에서 부부가 상대방의 존재와 인식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평등한 관계일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박민자, 2006) 것이다. 또한 비록 남편과 아내의 성별 평등 인식이 행복에 대해서 행위자 효과 및 직접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가정생활 만족을 매개하여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가족 간의 관계는 행복의 중요 요인이라고 한 ‘하버드 대학교 성인발달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내와 달리 남편의 성평등 인식과 가정생활 만족은 상대자 효과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남성의 성평등 인식과 실제 성역할 행위의 간극, 즉 진술과 실제 차원에서 괴리가 있다는 논점을 제시한다(김효진 외, 2020).

위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남편이 평가하는 자신의 성별 평등 인식과 아내가 평가하는 남편의 성별 평등 인식의 차이를 통해 인식과 행위의 차이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남편이 본인의 성별 평등 인식 수준에 대해 파악하고, 성별 평등 인식과 행위를 함께 개선할 수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성별 평등 인식개선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정부는 2018년부터 교육부를 중심으로 양성평등 인식을 가진 미래세대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정 내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교과서 개발 및 수정·보완 시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고 양성평등 고등교육체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립대의 양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등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양성평등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양성평등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족관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부의 행복 향상의 차원에서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성별 평등 인식 개선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개인 차원에서 여성이 남성생계부양자라는 불평등한 암묵적인 사회구조를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모두 평등한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도록 인식개선 활동을 해야 하며, 동시에 성별 평등을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와 같은 제도를 권장하는 사회 및 기업 분위기 조성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성별 평등 관련 국가정책의 확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정책과제 중 남성의 돌봄역할 지원 및 돌봄역량 강화를 제시한 것과 같이 남성들이 가정에서의 성별 평등한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져 성별 평등과 관련한 인식과 행위(진술과 실제)의 괴리의 간극을 줄여 나가 궁극적으로 부부의 행복과 더불어 가족 구성원 전부, 나아가 전 국민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용복, 2000, 『사회학사전』, 사회문화연구소.
- 김경미 · 계선자, 2018, 「맞벌이 가정의 일 · 가정양립과 행복수준에 관한 연구」, 『가정과삶의질연구』, 36(4): 103-119.
- 김시연 · 서영석, 2010, 「스트레스, 배우자 지지, 결혼만족 간 관계: 자기효과 및 상대방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2): 189-213.
- 김영미, 2016, 「출산과 성평등주의 다층분석」, 『경제와사회』, 112: 41-74.
- 김윤택, 2010, 「행복지수와 사회문화적 분석」, 『문화경제연구』, 13(1): 23-45.
- 김주환, 2011, 『회복 탄력성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유쾌한 비밀』, 위즈덤하우스.
- 김주현 · 문영주, 2010, 「맞벌이 여성의 성역할 태도가 결혼생활 만족과 일 만족에 미치는 영향-일 가정 갈등과 일 가정 강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2): 109-126.
- 김지현 · 황옥경 · 최희철, 2005, 「중년 남성의 성역할, 성역할 갈등과 부부의 결혼만족」, 『상담학연구』, 6(2): 621-632.
- 김태현 · 박주희, 2005, 「부부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부부관계 향상」,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3): 79-106.
- 김효진 · 신현우 · 홍세희, 2020, 「부부의 성역할 인식과 가정생활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상호매개 효과: APIMeM의 적용」, 『보건사회연구』, 40(3): 459-491.
- 나성은, 2014, 「남성의 양육 참여와 평등한 부모 역할의 의미 구성: 육아휴직제도 이용 경험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14(2): 71-112.
- 류아현 · 김교성, 2022, 「젠더평등과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실증: OECD 국가 간 비교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1: 5-34.
- 문지선, 2019, 「다중평형 상태의 젠더 이데올로기와 부부관계 만족도의 학력별 차이」, 『한국여성학』, 35(1): 183-242.
- 문진영, 2012, 「이스털린 역설에 대한 연구: 만족점의 존재여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4(1): 53-77.
- 민보경 · 박민진, 2023, 「미래세대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요인: 세대별,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36(1): 127-146.
- 박민자, 2006, 「행복가족의 요소와 의미」, 『가족과 문화』, 18(4): 183-205.
- 박종서, 2013, 「가족 내 가사분담과 성역할 인식에서 나타나는 양성평등 실태」, 『보건복지포럼』, 2013(5): 28-38.
- 보건복지부, 2019, 『보건복지부 성평등 정책 방향과 과제연구.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 설경옥 · 백상은 · 원수경 · 황여주, 2016, 「남녀 개인의 정서 조절과 이성 관계 만족에서 공동 대처 전략의 매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2): 445-468.
- 송혜림, 2015, 「일-가정 균형감과 행복도: 영유아기 자녀를 둔 기혼취업여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3): 81-99.
- 신경아, 2016, 「여성정책에서 성평등정책으로?: 젠더정책의 오해와 이해」, 『한국여성학』, 32(4): 1-36.
- 여성가족부, 2021, 『2021년 국가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 에스핑 앤더슨 요스타, 2014, 주은선 · 김영미 옮김, 『끝나지 않은 혁명』, 나눔의 집.

- 이명선, 2017, 「정책논단: 국민의 삶의 질: 양성평등과 삶의 행복」, 『The KAPS』, 49: 8-11.
- 이재경 · 김경희, 2012, 「여성주의 정책 패러다임 모색과 ‘성평등’」, 『한국여성학』, 28(3): 1-33.
- 이정은 · 이윤형, 2012, 「성역할 태도와 자아존중감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노출의 매개 효과」, 『상담학연구』, 13(6): 2543-2555.
- 임정하 · 김경민 · 강현지 · 조은영, 2017, 「부부의 행복추구경향과 행복증진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4(2): 157-177.
- 조영주, 2019, 「부부의 자기보고 결혼만족 및 지각된 배우자의 결혼만족 간의 관계: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4(1): 67-85.
- 주수산나 · 전혜정 · 왕순경, 2015, 「자기분화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부관계의 매개효과: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중심으로」, 『가족관계학회지』, 20(3): 113-132.
- 통계청, 2023, 『2022년 혼인 · 이혼 통계』, 통계청.
- 통계청 통계개발원, 2023, 『2022 국민 삶의 질 보고서』, 통계개발원.
- 하쾌남 · 정민자, 2017, 「유아기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균형, 회복탄력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도와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2(1): 111-134.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3, 『2023 성인지통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혜림 · 이지민, 2019,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상호작용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 (APIM) 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13(2): 95-119.
- 허준, 2014, 『허준의 쉽게 따라하는 Amos 구조방정식 모형』, 한나래.
- Becker, G. S, 1981, "Altruism in the Family and Selfishness in the Market Place", *Economica*, 48(189): 1-15.
- Becker, G. S, 1991, *A treatise on the family: Enlarged edi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en, G. and Billari, F. C, 2015, "Re-theorizing family demographic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1): 1-31.
- Goodman, C. R. and Shippy, R. A., 2002, "Is it contagious? Affect similarity among spouses", *Aging & mental health*, 6(3): 266-274.
- Hagedoorn, M., Sanderman, R., Ranchor, A. V., Brilman, E. I., Kempen, G. I. and Ormel, J., 2001, "Chronic disease in elderly couples: Are women more responsive to their spouses' health condition than men?",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1(5): 693-696.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Y: Guilford publications.
- Ledermann, T., Macho, S. and Kenny, D. A., 2011, "Assessing mediation in dyadic data using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8(4): 595-612.
- Lyness, K. S. and Kropf, M. B., 2005, "The relationships of national gender equality and organizational support with work-family balance: A study of European managers", *Human Relations*, 58(1): 33-60.
- McDonald, P., 2000, "Gender Equity, Social Institutions and the Future of Fertility",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17(1): 1-16.
- Schumm, W. R., McCollum, E. E., Bugaighis, M. A., Jurich, A. P. and Bollman, S. R., 1986, "Characteristics of the Kansas Family Life Satisfaction Scale in a regional sample", *Psychological Reports*, 58(3): 975-980.

- White, J. M., Klein, D. M. and Martin, T. F., 2015, *Family theories: An introduction (4t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Zabriskie, R. B. and Ward, P. J., 2013, "Satisfaction with family life scale", *Marriage & Family Review*, 49(5): 446-463.
- <KBS 뉴스>, 2022, 「팩트체크K 대한민국은 진짜로 ‘양성 평등 후진국’ 일까?」,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11120>. (검색일: 2023.07.17.)

##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 Couple's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and Happiness Verification of the Mutual Mediating Effect of Family Life Satisfaction: Application of APIMeM

Lee, Seongchul  
(Sogang University)  
Kim, Jinwook  
(Sogang University)

**Subject** Social Welfare, Social Welfare Policy, Family Policy

**Key words** Couple Research, Gender Equality Awareness, Happiness, Family Life Satisfaction,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Extended to Mediation

**Summ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utual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with family lif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 couple's perception of gender equality and happiness, using the couple as the unit of analysis and analyzing it by considering the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each variable. 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extended to Mediation was applied. 3,190 people (1,595 couples) from the 21st year of the Korean National Happiness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Future Institute were used in the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usband and wife's perception of gender equality, happiness, and satisfaction with family life, both husband and wife found that the perception of gender equal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atisfaction with family life in the actor effect, and that satisfaction with family lif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happiness. It was confirmed that this was a factor. However, there was a gender difference between couples in the partner effect. For the wife, both perception of gender equality and satisfaction with family lif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husband's happiness, while for the husband, there was no significant partner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s perception of gender equality and happiness, it was confirmed that the full mediating effect of family life satisfaction appeared for both husband and wife. Regarding the partner effect, the wife's perception of gender equal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husband's happiness, but in the case of the husband,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partner mediating effect.

접 수 일 : 2024년 1월 4일

심사완료일 : 2024년 2월 12일

게재확정일 : 2024년 2월 13일